

광주FC 김운호 “올해가 진짜 데뷔...10경기 5골 쏜다”



2024년 금호고 2학년 때 K리그1 ‘최연소 출전’
“팀 상황은 어렵지만 잘 준비해서 기회로 삼겠다”

광주FC의 김운호가 원점에서 프로 무대에 도전한다. 190cm·80kg 장신 공격수 김운호는 올 시즌에 앞서 광주와 프로 계약을 맺고 새로운 출발을 앞두고 있다.

그는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을 보유한 광주의 특급 유망주다. 금호고 2학년이었던 2024년 7월 광주 역사상 첫 준프로 선수로 이름을 올린 그는 이해 9월 제주와의 홈경기에서 ‘17세 4개월 9일’에 K리그1 데뷔전을 치렀다. 지난해 U18 대표팀에 승선했던 그는 리그 2경기에도 출전했다.

화려한 조명을 받으며 보낸 지난 2년, 김운호에게는 잊고 싶은 기억이다.

김운호는 “내가 생각해도 두 시즌에 제대로 된 경기 없다. 올해를 데뷔 시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다”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앞선 경기들을 생각하면 아쉬움만 남지만 먼저 경험한 광주 선수로의 시간은 김운호의 힘이다.

김운호는 “형들하고 경기 뛰는 것도 좋은 경험이지만 같이 훈련 하는 것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한다. 형들이 왜 프로에 왔는지 알 수 있었다. (안)영규형의 리더십, (주)세종이 형의 패스 퀄리티와 시야 등 각자의 색과 자신감 있다”며 “나만의 개성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형들보다 경험도 실력도 부족하니까 되든 안 되든 시도했다. 드리블하다가 뺏겨보고, 안 되는 것은 영상 보고 수정을 했다”고 성장의 자양분이 된 지난 2년을 돌아봤다.

“진짜 데뷔”를 다짐하는 그에게는 새로 지휘봉을 든 이정규 감독과 선배들 그리고 동기라는 든든한 지원군이 있다.

김운호는 “드리블 많이 하는 선수가 되고 싶다. 더 시도해 보고 더 뺏겨 봐야 한다. 감독님이 공격적인 부분에서 공을 뺏겨도 뭐라 안 하신다. 대신 뺏긴 다음 수비 반응 속도가 좋지 않을 때 뭐라고 하신다. 그래서 더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선배들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김운호를 키우는 살아있는 교과서다.

김운호는 “감독님께서 ‘선후배 없다. 봐주지 말고, 강하게 하라’고 하셔서 선수들이 편하게 부딪히면서 훈련한다. 형들이 먼저 ‘이렇게 해보라’고 이야기도 해주시니까 나도 편하게 질문하게 된다. 편한 분위기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며 “(같은 장신 공격수인) 프리드손도 유심히 본다. 불관리 물어볼 때도 있고, 키가 크니까 어떤 타이밍에 헤딩으로 공을 넣는지 아니면 연계를 하는지 본다. 타이밍을 배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포워드로서 볼 소유 능력, 볼터치 중요한 것 같다. 감독님이 압박을 많이 강조해서 많이 신경 쓰고 노력하고 있다. 연습할 때 (민)상기, (곽)성훈이 형이랑 등지고 골 지키려고 하다가 상기 형하고 부딪혔는데 꼬리뼈 나갈 뻔했다(웃음). 형들하고 부딪혔을 때 나는 소형차, 형들은 덤프트력 느낌이었다”고 몸으로 부딪치면서 배우는 것들을 언급했다.

고된 훈련 속 서로를 잘 아는 친구는 지치지 않고 달릴 수 있게 하는 비타민이다. 광주는 새 시즌을 앞두고 금호고 공배현(DF), 김용혁(DF), 정규민(MF)도 콜업했다.

김운호는 “친구들이 없어서 혼자 막내 생활했는데 나 포함 4명이 막내니까 생활이 더 편해졌다. 3년 동안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라서 좋다. 친구들이 프로에 대해 많이 물어봤는데 ‘광주가 다른 팀보다 힘들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다. 더 간절한 선수들이 모여있으니까 마인드 셋하면서 많이 준비해야 할 것 같다고 했었다”며 “고등학교 때와 차원이 달라서 하루 끝나면 많이 힘들어한다. 훈련 끝나고 나면 애들 얼굴이 주먹만 해 진다”고 웃었다.

가다렸던 프로 무대를 준비하는 과정은 고되지만 김운호는 굳은 각오로 친구들과 ‘기회의 시즌’을 붙잡겠다는 생각이다. 광주는 선수 등록 금지 정제로 상반기 빠듯한 살림을 해야 한다. U18팀에서 콜업된 선수는 징계와 상관없이 경기를 뛸 수 있는 만큼 ‘무기’들에게는 놓칠 수 없는 기회다.

김운호는 “팀이 징계를 당해서 선수 수가 적으니까 남아있는 선수들이 조화롭게 잘 해야 한다”며 “팀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우리에게서 기회가 될 수



K리그1 ‘최연소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는 광주FC의 공격수 김운호가 지난 2년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원점에서 새로 시작한다. 지난 1월 태극 후이팅 동계훈련에서 공을 다루는 김운호.

있다. 그래서 더 해보려고 한다. 욕심이 난다”고 언급했다.

패기를 앞세운 김운호는 더 힘을 키워 자신 있게 프로 무대를 누비겠다는 각오다.

김운호는 “일회성비하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멘탈

적인 부담감이 없다. 피지컬, 웨이트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힘을 키워야 한다. 힘으로 싸워야 한다. 수비수하고 공격수가 경험할 때는 공격수가 먼저 부딪쳐야 한다. 내 공간에 수비수가 못 들어오게 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다”며 “올 시즌 10경기를 뛰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또 2경기에 1골씩은 넣고 싶어서 5골을 일단 목표로 삼았다. 10경기를 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노력해서 목표 이루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WBC서 주목할 선수 ‘KIA 김도영’

MLB닷컴, 11명 선정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 김도영(22·사진)과 KT 위즈 안현민(22)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공식 홈페이지가 선정한 2026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11명에 포함됐다.

MLB닷컴은 23일 2026 WBC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 11인을 조명했다.

한국 선수로는 대표팀의 각각 3번, 2번 타자로 나선 김도영, 안현민이 꼽혔다.

김도영은 2024시즌 한국프로야구에서 타율 0.347, 38홈런, 40도루, 109타점을 기록하며 정규시즌 최우수선수(MVP)에 뽑힌 이력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MLB닷컴은 “김도영은 팬그래프(미국 야구 통계 사이트) 국제 유망주 랭킹에서 최고 타자로 평

가받는다. KBO에서 이미 파워와 스피드를 겸비한 스타로 떠올랐다”며 “2025시즌엔 햄스트링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지만, 이번엔 WBC 한국 대표팀에서 맹활약을 펼칠 준비를 마쳤다”고 평했다.

MLB닷컴은 또 안현민의 타고난 거포 기질에 주목했다.

MLB닷컴은 “안현민은 젊은 슬러거로 분류되며 마이크 트라웃(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를 닮은 체격에 ‘근육맨’(Muscle Man)이라는 별명도 있다”며 “2025시즌 112경기에서 타율 0.334, 22홈런, OPS(장타율+출루율) 1.018을 기록하는 등 김도영과 함께 한국 타선의 핵심 젊은 자원으로 평가받는다”고 소개했다.

같은 조별리그 1차전에서 맞붙을 일본에선 사토 테루야키(26·한신 타이거즈)와 다네이치 아스키(27·지바 롯데 마린스)가, 대만에선 쉬위시



(25·소프트뱅크 호크스)가 각각 눈여겨볼 만한 스타로 선정됐다.

이외에도 호주의 트래비스 바자나(23·클리블랜드 가디언스), 네덜란드의 드루 존스(22·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브라질의 조셉 콘트라라스(17), 푸에르토리코의 엘머 로드리게스(22·뉴욕 양키스), 이탈리아의 앤드루 피셔(21·밀워키 브루어스), 쿠바의 알렉세이 라미레스(44)가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광주체육 선수단이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남자 15세 이하부 준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광주에 첫 메달을 안겼다. <광주시 체육회 제공>

광주체중 컬링, 전국체전 동메달 쾌거

광주선수단이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 사정경기에서 첫 메달을 따내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광주체중(김현호·유태민·임강민·박해성) 선수단이 지난 20일 강원도 강릉컬링센터에서 열린 컬링 남자 15세 이하부 준결승에서 동메달을 획득해 광주에 첫 메달을 안겼다.

이번 메달은 동계종목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광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광주체중 선수단은 하계종목인 육상 훈련 경험

을 바탕으로 동계 기간 광주빙상장에서 꾸준히 훈련을 이어왔으며, 첫 출전임에도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체육회와 시교육청, 광주체중은 하계 중심의 훈련 환경 속에서 동계종목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팀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제107회 전국동계체육대회는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일원에서 개최된다. 광주에서는 6개 종목·120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160점 이상 획득과 종합순위 12위를 목표로 한다. /박연수 기자 training@kwangju.co.kr

한화, 노시환과 11년 307억 계약...KBO 최장·최대

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간판타자이던 노시환과 비(非)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을 맺고 23일 밝혔다.

한화는 “2027시즌부터 2037시즌까지 계약 기간 11년에 옵션 포함 총액 307억원”이라고 계약 조건을 공개하며 “이는 FA 계약과 비FA 다년계약을 통틀어 KBO리그 역대 최장기이자 최대 규모 계약”이라고 설명했다.

또 2026시즌 종료 후 포스팅을 통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에 진출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외국 진출은 MLB에 국한되지 KBO리그로 돌아올 때도 한화 프랜차이즈로 남도록 상호 합의했다.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차 1라운드 전체 3순위로 한화에 지명된 노시환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20홈런을 때렸다. 2023년(31홈런·101타점)과 2025년(32홈런·101타점)에는 30홈런·100타점을 달성했다. 2000년생 노시환은 지난 시즌 타율 0.260, 홈런 32개, 101타점을 기록했으며 프로 통산 7시즌 타율



11년 총액 307억원의 역대 프로야구 최장·최대 규모로 비자유계약선수(FA) 다년계약을 맺은 한화 노시환(왼쪽)이 박종태 한화 구단 대표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화이글스 제공>

0.264, 홈런 124개, 490타점의 성적을 냈다.

KBO리그 현역 선수 가운데 홈런 100개 이상을 때린 20대 선수는 노시환과 1999년생인 강백호(136개·한화) 두 명뿐이다.

노시환은 “내 가치를 높이 평가해주시며 역사적인 계약을 해주신 구단에 감사드립니다”며 “2026년 한국시리즈 우승 목표를 향해 열심히 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합뉴스

도체육회, 국비 5900만원 확보...선수 육성 속도

전남도체육회(회장 송진호)가 ‘단체구기종목 리더스포츠클럽 과학화훈련지원 프로젝트’에 선정돼 전문선수 육성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도체육회는 최근 대한체육회가 실시한 공모에서 강원도(6000만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900만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정스포츠클럽이 전문선수 육성과 공익적 스포츠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위한 것으로 생활체육을 기반으로 엘리트 선수로 성장할 수 있는 지속 가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기간은 오는 6월까지이며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하키, 핸드볼, 아이스하키 등 단체구기종목 전문선수반과 다양한 종목의 선수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체육회는 전남스포츠과학센터의 과학적 훈련장비 구입을 지원해 과학적 훈련 환경을 구축하고, 개개인의 경기력 데이터를 분석할 계획이다. 또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컨디션닝과 전략 분석을 진행해 경기력 향상을 꾀할 방침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